

고품격! 정통 시사 주간신문

일요주간

391호

2013년 3월 19일 www.ilyweekly.co.kr

인터뷰

정운찬 동반성장 연구소 이사장



희생자 3만여명

고통

대물림된 악몽같다

"낮엔 무서워서 밖에 나오지 못하고 밤이 되어야 나와 나무뿌리, 감자, 무를 뜯어 먹었다. ...때리는 사람은 굶어 있어(영양이 아래) 나무를 대고 생명이 오락가락 할 정도로 허박지를 때렸다. 모진 고문을 받고 다시 상산 4구서로 옮겨가 열을 통한 취조를 받았다."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우리 시대의 사명”

동반성장이나 경제민주화를 등한시 했다가는 경제적 역지는 물론 더 나아가 사회전체까지 붕괴될 위험마저 있다.

잇단 대형사고 재난콘트롤타워 부재

朴정부 국정 최대가치 ‘안전’ 시험대 올랐다

집중진단 朴정부, 본격 ‘물갈이 인사’ 시작됐나?

‘MB맨’ 겨냥한 표적감사 논란

유임된다던 경찰청장 전격 교체,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잇단 사임



‘CRPS’ 공적지원 제도화 시급

백인우원·홍영우의원

환자 47% ‘자살 위험군’

- ▶ 한국 경우 10만 명당 26.2명 환자, 전 세계는 2만명 수준
- ▶ 애성출산 압도하는 ‘가정 극심한 고통’ 수준으로 정의

레전드 강동희의 물락...



승부조작으로 찢겨진 농구계

갈 길 바쁜 여야, 곳곳 북병...쟁점은?

국정원 여직원·4대강 국정조사 앞길 험난

방송공정성 특위, 이석기·김재연 자적심사원 '진동' 예상
각종 국정조사, 인사청문회법 개정 농도도 임겨주기 발일 듯

朴정부, 호남홀대 현실화...광주·전남 '허탈'

호남눈물 외면해나

서울대 출신 영남권 인사가 압도적으로 많아

